

## 미 증시, 매파 연준 우려 속 물량 소화하며 하락 지속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 미 증시 동향: 지표와 FOMC 의사록 이슈 소화하며 하락 지속

• 미 증시는 산업생산이 양호한 결과를 내놓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되며 상승하기도 했음. 그렇지만, 이는 결국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 가능성을 부각시켜 반도체 등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한편, FOMC 의사록을 통해 연준 위원들은 높은 인플레이로 추가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보여주자 직후에는 영향이 제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국채 금리와 달러 상승폭이 확대되자 장 마감 앞두고 지수 낙폭도 확대(다우 -0.52%, 나스닥 -1.15%, S&P500 -0.76%, 러셀2000 -1.28%)

### 특징 종목: 반도체, 전기차 업종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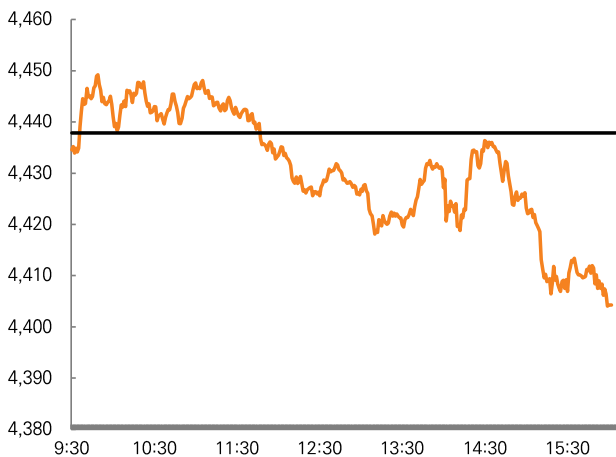
• 엔비디아(-1.03%)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 투자회사들이 초과 수요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며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2% 가까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임. 그렇지만, 금리 상승 등을 기반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결국 1% 하락 마감. AMD(-3.74%), 마이크론(-1.70%) 등은 하락 지속. 테슬라(-3.16%)는 중국에서의 가격 인하 소식으로 하락 지속. 니오(-3.63%), 샤오핑(-3.29%) 등 중국 전기차 업종도 가격 경쟁 우려로 하락. TJX(+4.13%)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고 동일 점포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자 강세.

### 한국 증시 전망: 되돌림과 매물 소화 속 외국인 수급 주목

• MSCI 한국 지수 ETF는 2.02%, MSCI 신흥 지수 ETF는 0.9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42.2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6% 하락. KOSPI는 0.5% 하락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지표 호전을 기반으로 달러 강세 및 국채 금리 하락이 진행되며 장 중 반도체 등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이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를 불러와 외국인 수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또한 부담. 여기에 미 증시에서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종목군의 부진도 여전히 진행됐고 장 마감 앞두고 국채 금리의 상승폭이 확대되자 관련 업종의 하락폭이 확대된 점도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하락 출발 후 최근 하락에 따른 되돌림과 매물 소화 속 외국인 수급에 따라 변화가 예상.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525.64	-1.76	상해종합	3,150.13	-0.82
KOSDAQ	878.29	-2.59	홍콩항생	18,329.30	-1.36
DOW	34,765.74	-0.52	베트남	1,243.26	+0.75
NASDAQ	13,474.63	-1.15	유로스톡스 50	4,284.27	-0.10
S&P 500	4,404.33	-0.76	영국	7,356.88	-0.44
캐나다	19,899.07	-0.00	독일	15,789.45	+0.14
일본	31,766.82	-1.46	프랑스	7,260.25	-0.1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 ① 경제지표와 연준 ② FOMC 의사록

미국 7월 산업생산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8% 감소에서 1.0% 증가로 전환해 예상했던 0.3% 증가를 상회. 자동차 및 부품이 전월 대비 5.2%, 컴퓨터 및 전자 제품이 1.0% 증가했으며 유틸리티도 5.4% 증가. 대체로 지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던 것으로 추정. 다만, 위축되던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공장 가동률도 78.6%에서 79.3%로 크게 상승해 경기가 견조함을 보여줌.

한편, 미국 7월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달 발표된 139.8만 건을 상회한 145.2만 건으로 발표되고 향후 전망을 알 수 있는 착공 허가건수도 144.1만 건에서 144.2만 건으로 증가했으나 모두 예상은 하회. 특히 단독주택 착공이 전월 대비 6.7% 증가하는 등 쓸림 현상이 진행. 최근 미국에서는 기존 주택의 공급 부족이 진행되며 신규 주택 착공이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모기지 금리가 7%를 상회하자 과거 저금리로 대출받은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새집으로 이사하기를 주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렇지만, 고금리로 인해 신규 주택 판매가 축소될 경우 신규주택 착공도 위축될 수 있어 금리로 인한 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은 여전.

지표 결과가 전일 소매판매에 이어 견조함을 보이자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 가능성에 달려와 국제 금리가 상승했으며 주식시장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는 약세가 뚜렷.

한편,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 더불어 더 이상 연말에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을 제외했다고 언급. 물가는 완화 조짐이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 그러나 근원 인플레이션 하락은 하반기에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긴축정책이 경제에 미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경고했으나,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 특히 인플레이션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물가 하락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언급.

관련 내용이 발표되자 직후에는 오히려 되돌림이 유입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지수 하락이 확대. 이는 연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반도체, 전기차 업종 부진

엔비디아(-1.03%)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번에는 도이체방크나 레이몬드, 파이퍼센들러 등이 초과 수요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며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2% 가까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임. 그렇지만, 금리 상승 등을 기반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결국 1% 하락 마감. AMD(-3.74%), 애널로그디바이시스(-2.29%), 마이크론(-1.70%) 등은 하락 지속. 타워 세미컨덕터(-10.69%)는 인텔(-3.57%)의 인수 제안 철회 소식에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8% 하락.

타겟(+2.96%)은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고 매출 부진을 발표했음에도 재고가 개선되고 있으며 주당 수익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자 강세. 달러 제너럴(+0.70%), 코스트코(+0.10%) 등도 동반 상승. TJX(+4.13%)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고 동일 점포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자 강세. 로스스토퍼(+1.07%)도 동반 상승. 프로그레시브(+8.87%)는 견고한 실적 발표하자 상승. 올스테이트(+4.44%), 처브 리미티드(+1.33%) 등도 동반 상승.

테슬라(-3.16%)는 중국에서의 가격 인하 소식으로 하락 지속. 니오(-3.63%), 샤오핑(-3.29%) 등 중국 전기차 업종도 가격 경쟁 우려로 하락. 전일 상장하며 급등했던 베트남 전기차인 빈패스트(-18.75%)는 매물 출회되며 급락. 징둥닷컴(-3.03%)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중국 경기 에 대한 우려 속 소비 지출 감소 가능성으로 하락. 알리바바(-2.70%), 바이두(-3.52%)도 하락.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45	대형 가치주 ETF (IVE)	-0.74
클린테크 ETF (CTEC)	-2.52	중형 가치주 ETF (IWS)	-0.79
소매업체 ETF (XLY)	-1.24	소형 가치주 ETF (IWN)	-1.14
온라인소매 ETF (EBIZ)	-1.39	대형 성장주 ETF (VUG)	-0.83
미국 인프라 ETF (PAVE)	-0.75	중형 성장주 ETF (IWP)	-0.90
핀테크 ETF (FINX)	-0.73	소형 성장주 ETF (IWO)	-1.40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69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53
클라우드 ETF (CLOU)	-1.01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81
사이버보안 ETF (BUG)	-1.10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42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80	미국 국채 ETF (IEF)	-0.38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23	하이일드 ETF (JNK)	-0.26
바이오섹터 ETF (IBB)	-1.43	신흥국 채권 ETF (EMBD)	-0.12
로봇&AI ETF (BOTZ)	-1.83	물가연동채 ETF (TIP)	-0.29
반도체 ETF (SMH)	-1.58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45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유틸리티	320.63	+0.46	-1.87	-5.60
필수소비재	770.97	-0.28	-1.82	-1.10
금융	566.56	-0.33	-2.02	-0.51
산업재	903.49	-0.55	-1.97	-1.64
소재	509.56	-0.66	-2.29	-2.78
헬스케어	1,566.51	-0.78	-0.29	+2.07
IT	2,945.89	-0.88	-0.84	-5.76
에너지	661.80	-0.90	-2.07	+6.22
부동산	227.96	-1.20	-2.90	-6.34
커뮤니케이션	222.18	-1.21	-1.25	-0.20
경기소비재	1,308.55	-1.27	-2.25	-4.4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되돌림과 매물 소화 속 외국인 수급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2.02%, MSCI 신흥 지수 ETF는 0.9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42.2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6% 하락. KOSPI는 0.5%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미 증시의 부진 여파로 하락 출발 후 그동안 강세를 견인했던 2차 전지 업종 등을 중심으로 매물 출회되며 낙폭 확대. 특히 달러/원 환율이 위안화의 약세로 6원 상승한 1,336.90원을 기록하는 등 원화 약세가 진행된 점도 부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반등 없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 KOSPI는 1.76%, KOSDAQ도 2.59% 하락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지표 호전을 기반으로 달러 강세 및 국채 금리 하락이 진행되며 장 중 반도체 등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이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를 불러와 외국인 수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또한 부담.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8% 하락하고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DRIV)가 1.80% 하락하는 등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종목군의 부진도 여전히 진행됐고 장 마감 앞두고 국채 금리의 상승폭이 확대되자 관련 업종의 하락폭이 확대돼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악재성 재료가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물론,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점은 부담이나 예견된 내용이었던 만큼 관련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 여기에 전일 하락에 따른 되돌림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하락 출발 후 되돌림과 매물 소화 속 외국인 수급에 따라 변화가 예상.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산업생산 개선

미국 7월 산업생산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8% 감소에서 1.0% 증가로 전환해 예상했던 0.3%를 상회. 공장 가동률도 78.6%에서 79.3%로 크게 상승.

미국 7월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달 발표된 139.8만 건을 상회한 145.2만 건으로 발표됐으나 예상했던 145.5만 건은 하회. 향후 전망을 알 수 있는 착공 허가건수는 144.1만 건에서 144.2만 건으로 증가했으나 이 또한 예상했던 146.4만 건을 하회.



## FOMC 의사록 공개 소화 후 금리 상승 확대

국제유가는 미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 주 원유 재고가 596만 배럴 감소해 예상했던 232만 배럴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하락. 가솔린 재고가 126만 배럴 감소 전망과 달리 26만 배럴 감소에 그쳤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발목을 잡아 매물 출회가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미국과 유럽 천연가스 또한 국제유가 부진으로 2%대 하락.

달러화는 견고한 산업생산 등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인 가운데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연준 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강세 요인. 파운드화는 근원 물가가 시장이 예상했던 6.8%보다 높은 6.9%로 발표되자 달러 대비 강세. 엔화는 BOJ의 완화 정책 기조 지속 가능성에 달러 대비 약세. 역외 위안화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여타 신흥국 환율도 달러 대비 약세.

국채금리는 전일 소매판매에 이어 산업생산이 견고함을 보이자 상승. 여기에 FOMC 의사록을 통해 전해진 연준 위원들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선호 소식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 대부분 예견된 내용이었다는 점을 감안 상승폭이 제한되기도 했으나, 장 마감 앞두고 재차 상승 폭을 확대.

금은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여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에도 미국 산업생산의 강한 모습에 기반해 품목별 혼조 양상. 곡물은 흑해 연안의 긴장에 집중하며 최근 하락에 따른 되돌림이 유입되자 반등에 성공. 다만, 글로벌 작황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진행돼 반등폭은 제한.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09% 상승. 철근은 보합.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9.38	-2.17	-6.13	Dollar Index	103.471	+0.25	+0.96
브렌트유	83.45	-1.86	-4.84	EUR/USD	1.0879	-0.24	-0.87
천연가스	2.59	-2.82	-12.67	USD/JPY	146.32	+0.52	+1.80
금	1,928.30	-0.61	-1.40	GBP/USD	1.2727	+0.17	+0.06
은	22.86	-0.77	-1.19	USD/CHF	0.8800	+0.17	+0.31
알루미늄	2,143.00	+0.02	-2.37	AUD/USD	0.6423	-0.50	-1.61
전기동	8,167.00	-0.40	-2.74	USD/CAD	1.3533	+0.26	+0.85
아연	2,283.50	-1.34	-7.90	USD/RUB	95.5937	-2.54	-1.30
옥수수	481.50	+1.31	-2.53	USD/BRL	4.9879	+0.08	+1.71
밀	623.00	+0.16	-5.59	USD/CNH	7.3370	+0.17	+1.49
대두	1,323.50	+1.51	+1.26	USD/KRW	1,336.90	+0.45	+1.61
커피	150.60	-0.50	-5.99	USD/KRW NDF1M	1,342.22	+0.43	+2.2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258	+4.73	+25.02	스페인	3.700	-0.80	+17.20
한국	3.861	-3.90	+8.50	포르투갈	3.386	-1.00	+15.70
일본	0.630	-0.20	+4.60	그리스	3.945	-2.50	+12.00
독일	2.650	-2.20	+15.30	이탈리아	4.352	-0.40	+20.5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